

전지전능의 삶이란.

작성일: 2011. 12. 27. (화) 새벽 2:30경 작업장
작성자: 장현순

* 예수님 말씀 *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도 정해진 시간 내에 모든 것을 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한두 개씩은 못하고 넘어가는 일들도 생겼고 포기하고 넘겨야 할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그곳에서 그 많은 일들을 다 하시는지... 기적 같은 일인 것과 너무나 위대하심을 고백했습니다. 기도 중에 인간이지만 “전지전능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고 전지전능의 삶이 무엇인지 간구했습니다. 이 말씀이 듣고 싶어 최선을 다해 살 것을 다짐하고 예수님 보시기에 말씀해 주실 수 있도록 노력하며 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새벽에 먼저 오시어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아.

전지전능의 삶은
인간으로서 100%의 책임을 다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최선을 다한 삶이다.
그렇게 되면 그 책임 위에
나의 책임이 빛을 발하게 되어
기적과 이적의 능력도 나타나게 되고
신비하고 오묘한 신의 능력의 일들도 맛보게 된다.

너희 선생을 보아라.

너희 선생 보면 안다.

너희 선생이 언제나
100% 인간의 책임분담을 다 했기에 밑물도 멈추고
오염된 바닷물과 계곡물도 깨끗이 변화되고
지역과 나라가 회복되며
자연 만물이 그의 최선 앞에 순응하며 반응하지 않더냐.
내가 자연 만물을 통해 역사해 보여 주는 것도 있지만,
자연 만물이 그에게 스스로 반응하는 것도 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릴 권세를 주셨으니
주관하고 다스린다는 것은

하나님 창조하신 그대로 본연의 사람이라는 뜻이다.

선생은 인간으로서 만물을 다스리며 다룰 줄 알고,
만물의 가치를 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치를 진정으로 알기에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에 눈을 뜬 자이기 때문이다.
선생은 사람까지도 주관하고 다스린다.

그것은 첫째 선생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조건
때문이고

둘째 만물이 스스로 선생에게 반응하듯이 (말을 듣듯이)

그의 사명을 떠나, 사람들이 그를 보고
그에게 스스로 굴복하기 때문이다.

신령과 진정으로 나에게 나아오라.

(예수님 신령과 진정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신령하려면 기도를 깊이 한 터전 위에

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한다.

진정은 진심이다.

간절함으로 나에게 다가오라.

신령과 진정의 의미는

나를 아는 것이다.

“나와 함께” “나의 안에”라는 말이다.

나와 함께 예배드리고 나와 함께 기도하며

나와 함께 나의 말씀을 듣고 뜻을 알고 행하고...

나와 함께 나의 안에서 사는 삶이다.

나와 함께하자는 말이다.

내가 곧 신령과 진정이니

나를 차지하는 자가 최고로 신령과 진정한 자니라.

이 시대는 너희 선생과 함께해야만

나를 차지할 수 있다.

선생과 함께하여 나와 같이 모으고

헤치는 자가 되길 바라노라.

너희 선생이 곧 신령과 진정이니 너희 선생에게 확인
받아라.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은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인간은 순종치 않는다.

인간으로서 책임분담을 못하는 것이다. 너희 선생의
기적과 이적의 전지전능한 일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결과만 보지 말고
선생이 증거하는, 되어지는 그 과정을
자세히 보고 들어라.

그의 수고와 노력 없이 된 일이 하나도 없다. 그가
육적 행함과 영적 기도 조건을 다 세웠기에

그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반응이니라.역사
는 그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고 결과이다.너
희 선생이 제자들과 함께
해변에 물이 들어오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스포츠 영광을 돌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자
하나님께서 육지로 들어오는 바닷물을 멈추게 하사
그 모든 영광을 다 받으셨고 끝까지 청소함으로 하나
님께서 바닷물도 멈추시고
바다도 계곡도 깨끗이 되는 기적을 나타내셨다.

너 기억하느냐?

98년도 체전 때 비가 많이 와서 운동장 상태가 나빠
행사를 할 수 없었을 때를.

(네, 예수님 말씀하시니 기억합니다.

그때 선생님 모습 보았어요.

전날에 비가 많이 왔었는데 그날도 비가 조금씩 계
속 내리고 있었고 운동장은 너무 질어서 행사를 할
수 없었어요.

그런 상황을 보고 사람들은 행사를 할 수 없다고 말
했어요.

운동장 곳곳에 물웅덩이도 있었고요. 그런데 선생님
께서

스펀지로 운동장 빗물을 빨아들여서 버리시고 또 빨
아들여서 버리시는 작업을 계속하시는 것을 보고 너
무 신기하게 생각한 기억이 납니다.)

그래, 맞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선생님께서 먼저 그렇게 하시니 사람들도 같이 선생
님 따라 스펀지 작업을 했고 트럭에서 모래 같은 흙
을 실어다 운동장 곳곳에 뿌렸습니다.그러면서 비가
멈췄고 운동장의 물도 감쪽같이 사라져 행사할 수
있게 바뀌었고 날씨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놀랐어
요.

선생님께서 기뻐하시니 사람들도 좋아했고 무사히
체전을 마쳤습니다.

선생님께서 인간이 먼저 기적을 보이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 주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 네가 본 그것이 네 선생의 모든 삶이다.왜냐하
면 너희 선생은 매 순간을 최선으로

100% 책임분담 다하여 살기 때문이다.

사랑아 우리 더 기도하자.너희 선생은 그곳에서 다
한다.그것을 깨닫고 네가 나에게 고백한 것 아니더
냐.너희도 책임분담 다하여 최선으로 선생과 함께 살
아라.하나님을 감동시키며 나를 때려시켜

우리가(성삼위) 움직이게 만들어야 진정한 신부란다.

심정 맞으면 내 심장도 내어 줄 정도로 다 해 주고
네 심장 멎을 정도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너희들
의 책임분담을 알고 먼저 할 것을 행하라.너희 선생
과 함께다.너희 선생에게 맞추어 하면 된다.

사랑으로 너희를 가르치는 주 예수다.